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음 10월 16일) 제24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내 유관기관, 기업관계자들과 함께 전북자동차산업 대한 기업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전진기지 도약 모색

전북도, 상용차 혁신성장사업 설명회

투트랙 지원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 제시
2021년까지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50개 기업유치·25만대 차 생산 등 추진키로

전북도는 11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도내 유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사업(이하 '상용차 혁신성장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를 통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도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진 지사 주재로 진행된 설명회는 '전북자동차산업 육성방향' 발표와 '상용차 혁신성장사업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기업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북도 내해수 주력산업과장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고 내연기관의 부품 기술고도화

와 친환경 미래차 부품 생태계 조성 등 투트랙 지원을 통한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2021년까지 새만금 친환경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업유치 50개사, 전기차 생산 25만대, 매출 7조5천억원을 달성하고 기술개발 9개과제, 인프라구축 6건, 강소기업 100개사 육성을 통한 글로벌 부품 공급기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예타면제 이후 과기부 적정성검토 통과 등 중간 추진 경과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될 기술개발과제, 공동연구소(Co-Lab센터)·테크비즈프러자 구축, 기업지원사업 등 '상용차혁신성장사업' 내용과 기업 지원체계를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대표는 도

내 기업이 기술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고 공모에 주도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도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용차부품혁신성장지원단 발족하여 컨설팅-기획-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술개발과제 공모를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북 경제의 대표 주자인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은 도정의 핵심과제이며, 완성차와 부품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경제를 위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확산에 기업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상용차 혁신사업에 보다 많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2020년 국가예산이 확정된 12월 이후 2차 사업 설명회를 전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메일 INDEX
4면 -책 읽는 도시들, 사단법인 설립 추진

전북 노인일자리 활성화 대회 성료

2019년 전북 노인일자리 활성화대회가 11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과 수행기관 실무자 및 노인인력을 고용하는 민간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일자리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2019년 60+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과 더불어 '100세 시대, 시니어 일자리 정책 고찰'을 주제로 관동대학교 정종보 국책사업통합관리위원장의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발표한 안형용(시니어 일회용품 사용단속반, 탐방 '사복이와 아롱이')님은 이번 기회가 노인일자리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김진성 기자

'스포츠'로 국경 뛰어넘다

한·중 청소년 교류전 성료
배드민턴 등 친선경기 펼쳐
전통문화 체험 시간도 가져



한·중 청소년들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 국경을 넘는 우정을 나눴다. 1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전'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사천성 나산시 일원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이번 교류는 지난 7월 전주시 일원에서 열린 1차 스포츠 교류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선수단은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선수와 임원 등 약 80명이 중국에 머물며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등 3개 종목에서 친선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종목별로 합동연습과 연습경기, 공식경기로 구성됐으며 경기 결과보다는 친선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경기 일정을 마친 뒤에는 대회 개최지의 문화를 한국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 유적지 방문을 비롯한 전통문화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 또 환경연과 환송연에서는 양

국의 청소년들이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끼를 발산했고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가 됐다. 이번 교류전에 참가한 권재은(이일여중)양은 "체육을 통해 중국의 친구들을 알게 돼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며 "잊지 못할 추억이 됐고 조금이나마 중국의 문화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선수단 최형원 단장은 "양국의 청소년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자기 기량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체육을 통해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이 친구가 됐고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양국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청소년 스포츠 발전에 기하고 국가 간 우호협력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일자리·산업체질강화 중점

전북도, 내년 예산 7조8317억 편성 도의회 제출

전북도가 11일 증가율 역대 최고인 7조8000억여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전년 대비 7787억원(11.0%)이 증가한 7조8317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증가율 11%는 역대 최고로 정부예산 증가율(9.3%)보다 1.7% 높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에 집중하겠다는 전북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644억원(10.0%)증가한 6조1934억원, 특별회계는 305억원(5.1%) 증가한 6256억원, 기금은 1838억원(22.2%)

증가한 1조127억원이다. 전북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산업체질강화, R&D 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동력 확보, 인구정책, 도시재생·미세먼지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월 여론조사 결과 도민이 가장 바라는 일자리, 도시재생, 미세먼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0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